

49대 총학생회

제49대 총학
공약점검



#. 양 캠퍼스의 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캠퍼스(서울캠)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국제캠퍼스(국제캠)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선거기간이다. 지난 3월 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양 캠퍼스 49대 총학의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 지난 총학선거에서 서울캠 총학 ‘열:일’ 선거본부(선본)의 권에하(언론정보학 2010) 정후보와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부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전체 유권자 13,486명 중 6,827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0.62%를 기록했으며, 찬성률은 69.55%를 기록했다. 국제캠 49대 총학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졌다. 지난 3월 국제캠 총학 ‘디딤돌’선본의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정후보와 이화영(기계공학 2015) 부후보가 총 4180표를 얻어 71.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상대편 후보와 2,700표차였다.

양 캠퍼스의 49대 총학이 이런 학생들의 지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신문은 양 캠퍼스 총학의 공약 이행정도를 점검해봤다.

단발성 공약은 성공적 ... 중장기 공약은 ‘까마득’

서울캠퍼스 총학 공약점검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서울】총학생회 권에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의 49대 총학생회(총학) 공약 이행도를 점검한 결과, 단발성 공약은 성공적으로 이행한 반면 학생사회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장기 공약 이행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9대 총학의 두드러지는 공약 이행은 3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 ‘수업권’에 해당했던 ‘대기순번제 폐지’다. 대기순번제는 지난 1학기 수강신청 당시 강의 매매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대기자 한도 1명’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시행된다/대학주보 온라인, 2017.01.18) 그러나 대기순번제가 오히려 강의 순환을 억제한다는 학생 불만이 속출했다.

총학은 지난 5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자체 설문조사로 대기순번제 폐지에 관한 찬반여론을 살폈다. 폐지 찬성이 83.4%로 나오자 총학은 지난 6월 23일 수강신청제도개선TF(Task force)에서 학교와 협의를 통해 2학기부터 대기순번제 폐지를 이뤄냈다.

총학, 다 된 밥에 숟가락 없기?

결과적으로만 보면, 총학의 공약 중 핵심 3대 공약 두 번째, ‘신축기숙사 입사지원’에 해당하는 ‘신축기숙사 경인지역 입사보장’과 ‘신축기숙사비 20만원 이내 3년간 고정’은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총학과 무관하게 이미 진행 예정이던 사안이다.

행복기숙사 윤필영 회장은 “행복기숙사 기숙사비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 3년간 월 19만 원에서 시작해 9천 원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

다”며 “앞으로 3년간 고정한다는 것은 합의된 바 없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되 인상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복기숙사는 원래 경인지역 학생 지원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신축 행복기숙사 매장수익에 관련해서도 “행복기숙사의 매장수익은 장학금으로 활용될 계획이 없으며 다만, 기숙사 운영비에 포함시켜 기숙사 비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양강의 수도 마찬가지다. 총학은 핵심 3대 공약 중에서도 ‘수업권’을 내세우며 ‘교양강의 수 부족문제’, ‘재수강 제한 추진 문제’ 등을 3대 과제로 짚었다. 더 나아가 ‘수업권’ 보장을 위해 ‘법인전입금 160억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이번 학기 중핵, 배분 교양강의 수는 총 187개로 지난 학기 195개에서 오히려 더 감소했다. 또한 4월 17일 2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배분이수 교양 40개 확대를 위해 긴급추경예산 1억 원 편성’을 촉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교양강의 증설을 위한 긴급추경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19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밝힌 교양강의 증설 약속은 후마 재도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중핵과목의 증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도 총학이 내걸었던 ‘다양한’ 교양강의 증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장학금 공약 중 ‘경제지원 장학 중심으로 개편’은 공약을 제시한 시기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번 총학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 3월, 이미 장학팀에서 ‘꿈도전장학’을 신설하며 학생역량강화장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장학팀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며 “지난해부터 장학개선 TF와 학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총학은 ‘재수강 제한제도 찬반여부 모바

서울캠 총학 공약명	이행정도
수업권 문제	△
신축기숙사 사용 및 지원	X
신축건물 및 공간 협의	X
경제지원 장학 개편	X
대선 의제 및 출석인정	○
입학금, 외국인등록금	△
통합회계운영세칙	X
소모임, 학회지원	○
간식사업	○
빛꽃영화제, 수강료 할인	△

일 정책투표로 결정’을 공약으로 세우고 재수강 제도 개편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먼저 취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8월 8일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일방적인 재수강제도 개편 반대 글이 올라왔다. ‘재수강 제도 개편’에 대한 정보제공도, 학생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반대 입장을 학교에 전달하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그 이후의 진행상황 역시 알려진 바 없다.

굵직한 공약에서 미흡

핵심 3대 공약 중 하나인 ‘신축건물 사용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단과대의 논의 사항 공개’와 ‘신축기숙사 1층 직접 디자인’을 내세웠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간호대, 이과대, 한의대가 SPACE21 단과

대학동에 이주하고 남은 공간 활용을 두고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에 관한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방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경대학 학생회 우예림(언론정보학 2015) 회장은 “2학기에 SPACE21 단과대학동으로 이사를 못하게 되면서 임의로 협의체 구성 날짜가 밀렸다”며 “협의체에 관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된 바는 있지만 일부 단과대에서는 학생회와 행정실 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부총장실 측은 정서영 서울부총장이 새로 부임한 후에도 총학 측에서 협의체에 관한 접촉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통합 회계운영세칙제정’ 공약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 자치회비 사용주체들이 정기적으로 학생감사단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2015년 진행된 ‘자치회비사용 신뢰도 조사’에서 85.6%의 학생이 ‘단과대학 학생회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으로 당시 47대 총학은 학생자치기구 회계 관리 양식과 감사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학대회가 무산돼 이를 48대 총학에 전달했다. 48대 총학 역시 같은 이유로 회칙 개정을 하지 못했고, 같은 공약이 현재 총학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전 총학의 공약을 이어받은 현 총학의 진행상황 역시 지지부진하다. 지난 1학기 총학은 전학대회를 열지 않았고 이에 총학권 회장은 “대동제 등으로 인해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해 여름방학 중 중운위를 통해 미리 일정논의를 했고, 일시를 임시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7일 50대 총학 선거가 약 25일 남은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학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학생 복지 공약 이행 ... 학사제도 개편은 ‘미흡’

국제캠퍼스 총학 공약점검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49대 총학생회(총학)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해 본 결과 무인프린터 설치, 의료기관 제휴 등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학생 복지 관련 공약은 대다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원화 문제 해결, 학사 제도 개선, 입학금 산정 근거 공개와 같이 핵심 공약들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보류상태이다.

우선 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총학의 세부 공약 24개 중 11개가 복지 공약일 정도로 복지 공약이 주를 이뤘다. 학생회관에 24시간 무인프린터를 설치하고 영화·연극 티켓을 제공하는 이벤트 진행, 의료기관 제휴 협약 체결과 같이 이벤트성 공약은 모두 이행됐다. 또한 지난 7월 총학 주도로 해외탐방프로그램인 ‘KHUCC 프로그램’을 진행해 30여 명의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학교를 홍보하고 왔다.

캠퍼스 명칭 변경 ‘다음에’

캠퍼스 명칭 변경 문제는 49대 총학의 주요 공약으로서, 명확한 이원화 캠퍼스를 위해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지명’을 캠퍼스 명칭으로 사용하고, 국제캠은 ‘예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분교 느낌이 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9대 총학은 명칭

변경을 통해 국제캠에 남아있는 분교 이미지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총학은 ‘이원화 TF(Task Force)’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여기에 국제캠 황주호 부총장, 국제캠 총학 국제캠 교수의회, 국제캠 노동조합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국제캠 구성원 모두 캠퍼스 명칭 변경에 합의를 했고, 평의원회와 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캠퍼스 명칭 변경은 이번 49대 총학 임기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학의 임기는 두 달 남짓 남았다. 그러나 캠퍼스 명칭 변경을 위해 서울캠과의 협의도 필요하며, 변경할 명칭에 대한 구성원끼리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총학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회장은 “위원회 설립으로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기구가 설립되면 다음 대 총학에서도 이 문제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 임기 안에 마무리 하면 좋겠지만 보궐 선거로 당선된 만큼 임기가 짧아 끝나치 못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학사제도는 ‘아직’

학사제도 공약에 있어서는 수강신청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던 대기 순번제가 시행 한 학기 만에 폐지됐다. 총학은 대기순번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고,

국제캠 총학 공약명	이행정도
이원화 문제해결	△
SPACE21 진행	X
대기순번제 폐지	○
강의 수 증설	△
학사제도 개선	X
기숙사 문제해결	△
입학금, 등록금 문제	X
취업 박람회 개최	○
각종 이벤트	○
전광판, 무인프린터 설치	○

양 캠퍼스 총학은 ‘수강신청제도개선TF’를 통해 대기순번제 폐지를 요구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더해 강의매매 방지를 위해 ‘자연삭제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2018학년도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총학은 수강신청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수요에 비해 적은 강의 수를 꼽

으며, 강의 수 증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학사지원과 문의 결과 2017년 2학기 강의 수는 증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 회장은 “TF를 통해 강의 수 증설에 합의가 됐다”며 “학사지원과에서 강의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니 2018년 1학기부터 수요가 많은 강좌의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신설될 것”이라 밝혔다. 캠퍼스 간 다른 학사제도나 불합리한 학사제도 개선, 이월 가능 학점 확대 공약은 아직 합의된 것이 없으며, 남은 임기 동안 학사TF를 통해 논의를 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결국 학사제도 공약은 대기순번제 폐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들은 논의 중이거나 진행 예정에 있다.

마지막으로 입학금 산정 근거 공개 공약은 현재 이행 보류 상태다. 이는 입학금 산정 근거를 학교에 요구해 공개한 후, 근거 없는 비용에 대한 차액을 반환받겠다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현재 입학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 결과에 학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총학은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숙사 통금 시간 폐지’공약은 축소돼 이행됐다. 당초에 12시까지였던 제2기숙사 통금 시간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2기숙사 측과 논의과정을 통해 12시에서 2시로 연장하고 축제기간과 시험기간에는 통금 시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기적인 기숙사 간담회 역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총학의 임기가 끝난 다음 연도에 진행될 예정이라 답했다.